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수 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담당: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0808 pspdint@pspd.org)
제 목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공개서한
날 짜 2021. 06. 30. (총 5 쪽)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결성된 연대기구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미얀마 시민사회, 망명정부인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국제단체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미얀마 군재벌인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 사업을 벌이고,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국영석유가스공사(MOGE)와 함께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하는 등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4.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을 다뤄주시고, ▷연기금의 여러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주시요. 또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서한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슈웨 가스전 등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나서주시시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얀마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입니다.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시민불복종운동(CDM)으로 저항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물대포, 최루탄, 섬광탄에 이어 실탄까지 사용하며 조준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법적인 살인과 고문까지 자행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 지역을 공습하여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6월 27일까지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883명에 달합니다. 6,380명이 체포되었으며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숫자만해도 5,183명입니다.

미얀마 시민사회, 망명정부인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국제단체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포스코가 그동안 미얀마 군재벌인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사업을 벌이고, 군함까지 판매하는 등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에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강판(C&C)**은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MEHL이 미얀마 군부의 핵심적인 돈줄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MEHL은 1991년부터 20년간 배당금으로 약 20조 1,240억원(180억 달러)을 주주에게 지급했는데 이 중 약 17조 8,880억원(160억 달러)이 미얀마 군부에게 송금된 바 있습니다. 특히 MEHL의 회장은 이번 쿠데타의 중심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으로, 유엔은 MEHL과의 합작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쿠데타 이전부터 권고하였습니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합작사업파트너인 한국가스공사, 인도의 가일 유한회사(Gas Authority India Limited), 인도의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 비데쉬 유한회사(Oil & Natural Gas Company Videsh Ltd),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함께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얀마 정부에게 두 번째로 큰 외화 공급원으로 이 중 80%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약 20%는 미얀마 국내에서 사용되는데 대부분이 군부, 군부의 사업 협력 업체 및 미얀마전력공사(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 등에 판매됩니다.¹ 이 사업으로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는 2015~2019년 동안 매년 2억 1,400만 달러에서 4억 7,1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과 해외 시민단체 등 국제사회가 포스코에게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가스 대금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어 가스 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우려가 크며, 이것은 결국 시민들을 공격하는 군·경의 자금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부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영은행들도 통제하고 있습니다.² 따라서 다국적 석유·가스 회사들이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에게 지급하는 것은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정권 탈취의 합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이 됩니다.

또한 포스코는 로힝야 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시점에 **미얀마 군부를 위해 군함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포스코는 민간 상선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변명했지만 방위사업청에 군함이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려서 수출 허가를 받은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미얀마 군부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 십억원을 군부에 지원**한 것도 다른 아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이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강조하는 윤리경영은 미얀마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¹ EITI Report (2017-18) available at:

https://eiti.org/files/documents/meiti_reconciliation_report_2017-2018_final_signed_31st_march_2020.pdf and Publish What You Pay Australia, (2021), “The military or the people. Who will benefit from Myanmar’s offshore gas projects?”, <https://www.pwyp.org.au/publications/who-benefits-from-myanmar-gas>

² 미얀마 경제은행(Myanmar Economic Bank), 미얀마 외환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이 있습니다.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면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명문화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기금운용 전반에 책임투자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6일, 저희 단체가 보낸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활동 계획에 대한 질의서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중대성 평가결과와 기금 보유지분을 및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를 조정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신을 발송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방안 등 기업의 입장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4월 5일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은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 역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소한 미얀마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배당금을 비롯한 대금 지급을 유예해야 합니다. 이미 야다나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은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의 책임투자 관련해 국민연금이 나서주시시오

국민연금은 2009년 책임투자 이행을 위한 국제 원칙인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PRI의 6가지 원칙에는 적극적 주주로서 활동하고 ESG사안을 투자정책과 관행에 통합하며, 투자대상 기업에 ESG 사안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요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7개 원칙에도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 요소 외 ESG 등 비재무 요소를 점검하고, 투자 대상 회사를 점검한 결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면 건설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주주활동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s)’은 모든 기업과 그 투자자들이 사업을 통해 야기, 기여 또는 직접 연계되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중단, 방지,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인권 침해에 관여 또는 기여하거나 그러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기업 자신과 투자자들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중대한 법적, 재정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얀마 군의 인권유린과 폭력에 더 이상 기여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과 이를 추진할 재정적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코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지침에 따라 **포스코에 대해서도 중대성 평가 실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 주십시오.**

또한 미얀마 군부와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같은 국영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금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으로 이 사안을 다뤄주실 것 역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양YMCA, 공익법센터 어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청년유니온,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여민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녹색당, 뉴욕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더불어한길, 동행(공익변호사),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명상의집 자애, 미래당,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발전대안 피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 사단법인 광명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창립준비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교회를 준비하는 만두파티, 서울녹색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성남YMCA, 성미산학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세계시민선언, 세첸코리아,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양YMCA,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B,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교조 경기지부 고양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5.19 구속부상자회, 전북교육마당, 전북불교네트워크,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당원모임,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진보3.0,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창작21작가회, 천주교 안동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화바닥,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만민회, 푸른공동체살터, 프란치스코재속회 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래시브 코리아(Progressive Korea), 플랫폼C,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현대자동차 불자회, 형명재단, 홀리스행동, 흥사단, (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성북시민연대(105개)